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주임신부 : 김학배 안젤로
 사목회장 : 유인웅 다 윗 이범준 요 셉
 평협회장 : 최대연 다니엘
 사무장 : 주정희 마리아
 오일공-오팔오-칠육삼팔
 사일오-이육오-일오오사
 오일공-이팔둘-이오팔공
 육오공-육칠팔-일이삼오

2026년 공동체 사목방향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희망의 공동체 하느님 안에서 배려하는 공동체 기도로 하나되는 공동체

[(백) 부활 제3주일]

2026년 4월 19일(제2182호)

사무실: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TEL 510-553-9434 근무시간 : 화(5pm~8pm), 토/일(8am~4pm)

E-mail: standrewoak@gmail.com
 홈페이지: WWW.OAKCC.ORG

주일 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대건관 1호, 3호	
한국 학교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10시 교육관 106호	
신심단체	레지오마리아	주일 오전 9시 30분~10시 30분
	성령기도회	토요일 오전 9시
	향심기도회	월요일 저녁 7시30분 온라인
성시간	첫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시 / 11시
	평일 미사	화·목 오후 7시 30분 수·금·토 오전 11시
성사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병자성사	사무실/주임신부님 상시 신청
	혼배성사	사무실 신청
유아세례	사무실 상시 신청	
한자봉성체	매월 첫째 주	

제1독서 사도행전 2,14.22ㄴ-33

화답송

-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베드로 1서 1,17-21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31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성가]	8시	입당	129	봉헌	216	성체	164	파견	63
	11시	입당	134	봉헌	219	성체	179, 166	파견	76
부활 제3주일	4월 19일(주일)		4월 21일(화)	4월 22일(수)	4월 23일(목)	4월 24일(금)	4월 25일(토)		
	8시미사	교중미사							
미사해설	이명란 아네스	이명련 파트리샤			장희숙 루시아	이명련 파트리샤	성령 기도회		
독서	정기환 레안텔 정미경 말가디다	권창모 미카엘 김수빈 도로테아			이기자 요안나	이명란 아네스	성령 기도회		
제의방	허홍숙 세실리아	이은자 마르토나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허홍숙 세실리아		
묵주기도		이명란 아네스							

■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볼 때입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과 슬픔이 있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살아 숨 쉬기를 청하며, 주님께서 현존하시는 성체성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

■ **평일 미사 정상화**

-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 4/22(수) 날 입국하십니다.
 - 4/21(화), 4/22(수) 미사 없습니다.
 - 4/23(목), 4/24(금), 4/25(토) 미사 있습니다.
- # 매 교중미사 30분 전에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부활시기 신앙의 신비**

-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받으소서

■ **부활 삼중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매일미사 33쪽 참조))

■ **4월 성경 통독**

-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3,1-4,13

■ **4월 25일 토요일 미사전례 : 성령 기도회**

■ **연도 안내**

- 4월 19일(일) 8/ 11시 미사 후에 김학철 요한 형제님의 어머니 **故 김아레 카타리나** 자매님을 위한 연도가 있습니다.

■ **성모회 임시 총회**

-일시: 4/19(일), 오후 1시
-장소: 교육관 201호

■ **안나/요아킴 4월 모임**

-4/25(토) 미사 후, 친교실
*음식 나눔 및 4월 생신 축하식이 있습니다.

■ **김영숙 안나 자매님 팔순**

-일시: 4월 26일(일) 교중미사 후 밥나눔 때

■ **향심기도 일일 피정**

우리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과 마주보며 그분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귀한 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5/4(월), 9 AM - 7 PM, San Damiano Retreat
-강사: 박정은 소피아 수녀님
-마감 및 참가비: 4/19(일), \$110(점심 & 저녁 포함)
-문의 : 황혜정 데레사(510-384-0895)

■ **모임 및 회의**

- 오클랜드: 4월 19일 오후 12:30 교육관 106호
- 콘트라코스타: 4월 19일 오후 12:30 교육관 107호
- 캐스트로벨리: 4월 19일 오후 12:30 대건관 3호
- 알라메다: 4월 19일 오후 5:30 B.B Bowl

■ **밥나눔 안내**

- 메뉴:돼지갈비 김치찜(이베로니카), 김밥(윤세레나), 제육볶음(박세실리아), 오므라이스(이아네스), 소고기 미역국(이 요안나), 소고기 야채덮밥(송아네스)
*오늘 김 카타리나 자매님을 위해 연도와 기도를 해주 분들에게 유가족이 밥나눔 티켓5장씩 드립니다.
- 다음번 밥나눔: 4월 26일(김영숙 안나 자매님 팔순)
- 문의 : 송성숙 아네스 자매님 (오일공-삼칠오- 오일사찰)

■ **공동체 기도 지향**

조상희 마리아, 정화봉 로사, 최라파엘, 전옥분 크리스티나, 황정숙 말찌나, 권주선 다니엘, 천혜수 아네스, 임윤택 루시아, 브루스아론조 발바라, 박숙모 아네스, 박인규 시몬, 김옥자 마리아, 임희숙 세트리다, 이수인 안드레아, 조지현 안젤라, 권영섭 요셉, 하숙연 베로니카, 신재극 스테파노, 이기석 보나벤투라, 김영숙 안나

■ **기도와 미사를 위한 성당 이용 안내**

미사 전 기도와 고해성사에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도록, 또한 미사 중 분심을 줄이기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친교실에서 성당으로 통하는 문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성당 정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당 입구 홀에서는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성당은 울림이 큰 구조로, 작은 소리도 내부에 크게 전달됩니다.
 3. 미사 전에는 휴대전화가 반드시 묵음 상태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4. 장궤를 내릴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 신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성모님 상 화단은 레지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초를 제거하거나 심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빈첸시오회 지역사회 이웃돕기**

- 문의 : 이영길 안드레아(오일공-이구이-오파일오)

■ **본당 청소(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문의 : 이덕용 안드레아(오일공-칠칠삼-사삼팔삼)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본당에서 봉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안셀모(4/12), - 마르코(4/25)

☞ **성당에 처음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미국 앨리미다는 며칠째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종일 바람이 불고, 창밖으로 하루하루 더해 가는 초록의 춤을 하염없이 바라보게 된다. 책을 읽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초록을 만져 보고 싶어 우산도 없이 떨어지지 않는 감기를 무시하고, 밖으로 뛰쳐나간다. 멈추지 않는 초록의 바람 속을 걸어 보다가, 나뭇잎들도, 아이들도, 내 차 지붕에 딱 하니 올라가 있는 까마귀도,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은 멈추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초록초록한 계절의 비는 나에게도 생명 속으로 걸어 나가라고 재촉하는 것 같다.

오늘 주일 미사 후, 나는 가까운 신자들과 비가 오락가락하는 공원을 걸었다. 초록이 나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행복감을 온통 휘감았고, 출렁이는 초록색 호수를 보면서, 이 싱그러운 자연처럼, 우리들의 세상이 평화롭기를,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출렁이기를 기도했다.

성주간의 장엄 전례를 마치고, 우리는 활기찬 알렐루야를 노래하고 있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부활 시기를 보내며 부활을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여전히 아픈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부활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첫 제자들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앙인은 부활의 빛 속에서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며 새 길을 찾아간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누구든 자기 생의 불확실성을 기쁨 속에 견뎌 내는 서툰 작업을 시작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복음서를 읽어 보면, 부활 사화는 다른 부분에 비해 짧고, 또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성서 학자들은 바로 이 시점, 즉 신앙 공동체가 부활의 빛 속에 낯선 삶을 시작한 이 시점이 복음서를 작성한 시기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부활이란 신비 혹은 명료함과 거리가 먼 삶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삶의 현장에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성찰했을 것이다. 그런 점을 강조한 학자는 샌드라 슈나이더스로, 복음서는 부활의 체험에 기초한 상상력을 가지고 써 내려간 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샌드라 수녀님의 얼굴은 씩씩하면서도 아름다웠고, 그의 신학적 동력은 늘 부활의 삶에 있었다.

그러니 복음이 쓰인 배경에는 부활을 경험한, 그래서 새 생명을 향해 걸어간 초대 교회 공동체의 성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선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던 때, 그 아름다운 시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부활 신앙을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 불확실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을 통해 시선을 확장해 가는 호기심 깃든, 그래서 약간은 고달픈 작업일 것이다. 그러니 부활은 어떤 고정관념이나 습관이 된 교리를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생과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걸어 내려는 부단한 노력이다.

이 글을 쓰는 시간, 지인이 보내 준 신경림 시인의 시 한 구절이 마음에 깊이 다가온다.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부활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란, 결국 주님의 길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스스로 들여다보는 일이다. 밖의 길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내 생은 어떤 낯은 것도 남지 않을 것만 같다. 그렇게 온통 새로운 초록의 세상이 될 것 같다.

요즈음 미사에서 계속 사도행전을 들으면서,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매일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마음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삶을 나누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갔다. 그러면서 생각해 본다. 그분께서 당신의 상처를 보여 주시며,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고, 새로운 어떤 길을 함께 가자 하시면, 나는 그 새로움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면 어쩌냐고 하는 조바심도 있다.

그런데도, 부활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초록의 싱그러움과 벼들과 주고받는 가벼운 농담과 진정 어린 염려들이 먼저 마음에 들어온다. 그래서 또 위안을 얻는다.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는 교회의 전통 안에서, 새로움을 함께 찾아간다면, 외롭지 않아서 좋을 것 같다. 함께 가다, 힘들면 함께 쉬어 갈 테니. 그러니 부활 시기는, 무엇보다 먼저, 벼들과 함께, 초록초록한 들판에 나가 "알렐루야 노래하자 기쁜 때가 왔도다"를 외치며 매일매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일이다. 설사 전쟁과 폭력으로 어두운 세상일지라도.

출처:가톨릭뉴스

지금여기(<https://www.catholicnews.co.kr>)

■ 미사참례인원 / 지난 주 정성

미 사 시 간	8시	11시	주일학교	총
미사참례인원	29	151		180

주일미사			2차 헌금		교무금	Bishop	감사 헌금	성소	선교	빈첸시오	황금빛
8시	교중미사	주일학교	8시	교중미사							
[교무금] 김영자(1), 이정연(4), 이흥구(4-6), 강시구(1-4), 유인웅(4-6), 최몽렬(4), 김영희(5), 김영길(4), 정석준(1-5), 최대연(3-4), 함주성(2-5), 김현수(1-3), 임석호(3-4), 최윤기(4), 이수인(3-4), 이옥경(4)						최윤기		최윤기	이옥경	유인웅 이옥경	

+미사지향

날 짜		지 향	봉 헌 자	날 짜		지 향	봉 헌 자
4/19(일)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4/19(일)	생	권영섭 요셉	이 에스터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나 /아네스		생	김베드로/안나 가정	송아네스
	연	정대업 벤자민	정혜경 데레사		생	권클라라/바실리오 가정	송아네스
	연	김형준 시몬	가족		생	전윤자 데레사	송아네스
	연	이호순 마리아	이에스터		생	전쟁중에 있는 군인들	송아네스
	연	김지성 에드워드	김케넷가족		생	도미니크 김	김원조도미니크
	연	김재성 제이슨	김지호 알렉스		생	김젼마	김아롱 폴
	연	이영아 아나스타시아	RON LWIN		생	김영희 엘리사벳	김영선 안젤라
	연	박정희 올리엠타	김원덕 시몬		생	박호영 헬렌	김 엘리사벳
	연	천성배	천다니엘		생	이필형 필립	이에스터
	연	김청수 바오로	김용찬 프란치스코		생	이재욱 안젤모 신부님	이에스터
	연	유낙양 베로니카	가족				
	연	윤 Dana 요한	가족	4/23(목)	연	한동설 안젤로	가족
	연	장민우 베난시오	김문환 베드로		연	장대식 바오로	장루시아
	연	장민우 베난시오	이로사		연	이용 요셉	이소지 마리나
	연	장민우 베난시오	김순희 클라라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장민우 베난시오	황데레사		생	김학배 안젤로 신부님	익명
	연	김귀연 안나	이정순 마리아미카엘라		생	조성빈 라파엘	가족
	연	이세림	이요셉		생	조수원 미카엘라	가족
	연	이효동	이요셉				
	연	전데레사/전마리아	전데레사	4/24(금)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전안드레아/전요셉	전데레사				
	연	전바오로/전베드로	전데레사				
	연	김요셉/안나	유니스	4/25(토)	연	주봉진 요셉	주정희 마리아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김아레 카타리나	대건회		연	이원진 야고보	가족
	연	김아레 카타리나	염 파트리샤		연	장민우 베난시오	송아네스
	연	김아레 카타리나	김문환 베드로		연	김아레 카타리나	가족
	연	김아레 카타리나	김엘리사벳		연	김아레 카타리나	조프란치스코
	연	김아레 카타리나	김순희 클라라		연	김아레 카타리나	박헬레나
	연	김아레 카타리나	양마르코		연	김아레 카타리나	이명란 아네스
	연	김아레 카타리나	황데레사		연	김아레 카타리나	염파트리샤
	연	김아레 카타리나	이 베로니카		생	박호영 헬레나	이에스터
	연	김아레 카타리나	박헬레나				
	연	김아레 카타리나	전지형알렉스				
	연	김아레 카타리나	이명란 아네스				
	연	김아레 카타리나	이에스터				

<p>Samuel Kim 건강 보험 전문 메디케어/메디칼 처방약 보조. ACA 무료상담 (510)418-0243 samkim515@gmail.com CA Lic. #4474816</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Fax (925)803-0204</p>	<p>김수정 부동산 김수정 나탈리아 Keller Williams DRE 02049482 ☎ (925)416-9249 julia.kim@kw.com</p>	<p>폴킴 부동산 주택/다세대 아파트/커머셜 ☎(510)847-5837 DRE #01851957 paulkimhomes@gmail.com LEGACY Real estate & Associates</p>
---	--	---	--